

2018년 4월 21일 한국의교사연구회

◎ 『선화봉사고려도경』 (고려 인종 원년 1123년 사행: 건륭 58년=1793년 『지부족제총서』본)

제 6권 궁전 2

장령전

-중조(中朝)의 사자가 고려에 오기 위해 보내는 사전 소개서를 받는 곳

장경전

-왕우(=고려 선왕인 예종)의 생일을 기리는 함녕절. 연회에서는 화이(華夷) 2부의 음악이 함께 연주

연영전각

-왕은...유학을 숭상하고 중국의 기풍을 기꺼이 흠모했다...한결같이 주공과 공자, 맹자, 양옹 등 이후의 고금의 문서를 모아두고...삼강 오상의 가르침과 성명 도덕의 이치가 온 나라에 가득 차서 넘쳐흐른다.

-고려 인종이 송사들에게 한 말. “하늘이 평안함을 내려 준 덕에...세 방면의 변경에서 전란이 끊어지고, 문폐가 중하(中夏)와 같게 되었다.”

-송사들을 성대히 대접함

임천각, 장경궁, 좌춘궁, 별궁

제 7권 관복

- 동이의 풍속은 머리카락을 자르고, 몸에 문양을 그려넣으며, 이마에 문신을 하고, 교지(혼욕)한다고 한다. 그러나 고려는 기자가 책봉 받을 때부터...의관을 갖추게 되었을 것이다...당 초기부터 차츰 다섯 가지 색의 옷을 입고...우리 중조(=송대)에 이르러 매년 신사(信使)의 내왕이 있게 되어 여러 차례 습의를 내려 주었기 때문에 점차 중국의 풍습에 젖어들었고...오로지 우리 송의 제도를 좇았다...그러나 관직의 명칭이 차이가 있고...간혹 다른 점이 있어, 삼가 이를 열거하여 관복도를 그린다.

왕의 복식

고관의 복식

-지금은 그 관직이나 훈작의 명칭이 왕왕 중조의 것을 모방하고 있어, 간혹 그 까닭을 물으면 개원 고사(〈당육전〉)를 좇아 쓰고 있다고 말한다. 그 의관조차도 어떤 것은 (중국의 그것과) 비슷하다.

재상의 복식, 근시관의 복식, 시종관의 복식, 경과 감의 복식, 조관의 복식, 일반 관리의 복식

제 8권 인물

-범엽이 지은 책(=후한서)에서 말하기를, “夷란 뿌리이니...타고난 성품이 부드럽고 온순하다.”고 했다. 그래서 싸움을 좋아하는 西戎하고는 같지 않다.

-고려인은 병기가 조악하고 간단했기 때문에, 흉노(=거란)가 여러 차례나 내리 눌러 꼼짝 못하게 하여도 그들과 대적하지 못하였다.

행고

궁시

-탄궁(탄자활. 탄력을 이용해서 탄환을 발사하는 활). 화살이 매우 멀리 가기는 하지만 힘이 없다.

관혁, 등장, 의극, 호가

수패(=짐승 문양을 그린 방패)

-과연 화살과 돌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패검

-형체가 길고 칼날이 날카로움

제 14권 기치<旗幟>

-불공을 드리거나 하늘에 제사를 올릴 때 열 방향으로 큰 깃발을 세움. 황제의 조서가 처음 성 안에 들어가 예를 받을 때까지 특별히 사용

상기, 응준기, 해마기, 봉기, 태백기, 오방기, 소기

제 15권 수레와 말<車馬>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군사가 있기 마련이며, 군사는 수레로 운송하고 수레는 말로 가기 때문에, 옛날에 나라를 판가름할 때는 반드시 수레의 수를 보고 그 크고 작음을 나누었다.

-고려는 海國이긴 하지만, 운반할 때는 수레와 말을 사용. 그러나 땅이 낮고 좁은데다가 돌이 많고 메말라서, 中華와는 비교가 되지 않음. 이로 인해 끝채나 수레의 제도와 말을 제어하는 방법도 같지 않음

채여

-채여 3채. 하나는 詔書(황제의 명령을 기록한 문서) 받을 때, 다른 하나는 御書(황제가 직접 지은 글이나 글씨) 받을 때 사용. 왕의 제자와 나라 관리들이 조서를 맞이할 때, 길에서 수레를 바라보며 절하였다.

견여(어깨에 매는 가마)

-객관을 나갈 때마다 반드시 견여로 정사와 부사를 모시려 했지만, 그 예가 분수에 넘쳐서 감히 타지 못하고

우거(牛車)

왕마

-왕이 타는 말은 안장과 언치가 아주 화려

사절마

- 고려는 大金과 멀지 않아, 잘 달리는 좋은 말이 많다. 그러나 말 기르는 관리들이 말을 잘 다룰 줄 모른다.

기병마

-기병이 타는 말의 안마와 언치는 아주 정밀하고 교묘하다.

제 16권 관청<官符>

-고쳐가 처음 관직을 설치할 때는 12등급을 두었지만, 夷語를 계승해서 이름을 지었음...皇華가 점차 미쳐지면서 중국 관부의 명칭을 모방하기도 했지만, 막상 관직에 임하여 일을 처리할 때는 여전히 夷風을 따랐으니, 왕왕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바른 道를 사모하는 뜻은 역시 가상하다 할 것이다.

성과 감<省監>

-예빈성(禮賓省)=사방의 이웃 나라에서 오는 빈객(즉 사신)을 관장하는 곳

국자감, 창름, 부고, 약국

감옥

-夷人の 성품은 본래 인자해서, 죽을죄를 지었어도 관대히 다스려서 산이나 섬으로 유배 보내는 경우가 많고, 여러 차례 사면해서, 세월의 경과 정도에 따라 죄의 경중을 헤아려 용서준다.

제 17권 사당 집<祠宇>

제 18권 도교<道教>

불교<釋氏>

-고려는 비록 海東에 있지만, 청량법안의 한 가지가 동쪽으로 건너온 뒤부터 승려들이 性理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한다.

제 19권 일반 백성<民庶>

-고려는 영토는 넓지 않지만 백성은 대단히 많다. 四民의 생업 가운데서 儒子의 일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글을 알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토산물은 모두 公上(조정이나 관청)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상인들은 먼 곳까지 다니지는 않고

진사(進士)

-국자감에 모여 함께 시험 보는 이가 거의 4백명. 정화(1111-1117)연간에 학생 김단 등을 보내어 입조케 하였을 때, 은혜를 입어 과거의 합격을 허락 받음(*고려는 광종 9년=958에 당을 모방하여 최초 과거 시행)....그로 인해 유지를 생업으로 삼는 이가 더욱 많아졌으니, 아마도 마음을 기울여 (중국을) 사모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다.

농민과 상인

장인

- 장인의 기술이 아주 정교한데, 절묘한 기예를 가진 자들은 모두 관가에 귀속

민장(民長)

뱃사람(舟人)

제 20권 부녀자(婦人)

-근래에 고려의 조공 사절이 송조의 대궐에 이르러, 조정에서 내려주는 10등급의 관복을 얻어, 마침내 교화를 따르게 되었다. 지금 왕부와 재상가에는 華風이 많이 유행하고 있으니, 세월이 더 지나게 되면 응당 풀잎이 바람 따라 드리눴듯 더욱 교화될 것이다.

귀부인, 계집종, 천한 심부름꾼